

## 本草 炮製關聯 用語에 對한 研究

송지청<sup>1)</sup> · 심현아<sup>1, 2)</sup> · 엄동명<sup>1, 3)\*</sup>

<sup>1)</sup>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sup>2)</sup>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정보학과, <sup>3)</sup>한국전통의학연구소

### A Study on Herbal Processing Terminology

Ji-Chung Song,<sup>1)</sup> Hyun-A Shim<sup>1, 2)</sup> & Dong-Myung Eom<sup>1, 3)\*</sup>

<sup>1)</sup>Dep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2)</sup>Dept. of Informatic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3)</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 Abstract

**Objective:** Processing of medicinal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 in medicinal treatment. However, in text books, there are disagreements and several terms with same meanings.

**Method:** We tried to compare the processing of medicinals in text book, Bonchohak especially in exterior-releasing medicinal and heat-clearing medicinal.

**Results:** The terms of processing of medicinals in introductions of text book, Bonchohak are different from those in an itemized discussion of exterior-releasing medicinal and heat-clearing medicinal.

**Conclusion:** The terms of processing of medicinals in text book, Bonchohak should be reorganized and improved to make be clear and sure as a text book.

---

**Key words :** processing of medicinals, text book, *Bonchohak*

---

---

· 접수 : 2012년 12월 4일 · 수정접수 : 2012년 12월 21일 · 채택 : 2012년 12월 22일

\* 교신저자 : 엄동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전화 : (063) 850-6941. 팩스 : (063) 842-4328. 전자우편 : haksan@wku.ac.kr

## I. 序 論

本草學書籍에서 本草를 說明하기 위하여 基源, 產地, 成分, 性味, 歸經, 主治 등 여러 가지 項目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炮製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本草學書籍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서적에서 설정하고 있는 항목은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설정하는 항목은 비슷할지라도 설명하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면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 전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본초학 지식은 서적에 서술되어 있는 지식일 뿐만 아니라 임상에서 곧장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客觀的이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해야 해당 약물에 대한 지식과 情報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本草學書籍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살펴보면 표준화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서적 내에서도 서로 다른 용어로 지식을 표현하고 있어 용어 사용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초학 관련 표준화 필요성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신 등\*의 주치 효능 용어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효능과 주치 증상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용어 표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포제용어에 대한 연구로는 박\*\*의 연구를 통해 역대 서적에서 언급하고 있는 포제 관련 용어들을 조사하여 포제관련 용어의 표준화를 역설하였으나 개별 약물에서 포제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초학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약물의 포제 관련 내용 가운데 포제방법을 표현하는 관련 용어들을 조사하여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研究方法

- 1) 저본은 전국한의과대학 공통교재편찬위원회에서 편저한 『本草學』(서울: 영림사, 2004.)을 대상으로 한다.
- 2) 연구대상 약물은 解表藥과 清熱藥 83種을 대상으로 한다.
- 3) 解表藥과 清熱藥에 대한 【炮製】 항목 내용을 추출한다.
- 4) 名詞形 用語는 그대로 使用하고, 敘述形 文章은 名詞形으로 만들어 考察한다.
- 5) 추출한 내용을 포제 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고찰한다.

## III. 本 論

우선 解表藥과 清熱藥의 포제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출전은 일일이 밝히지 않았다.

### 1. 解表藥의 포제법

#### 1) 發散風寒藥

- (1) 麻黃: 雜質을 제거하고 發汗에는 生用하고, 潤肺止咳에는 蜜炙用한다.
- (2) 桂枝: 물에 담가 물기가 충분히 스며들면 건져 물기가 없어지면 썰어서 乾燥한다.
- (3) 紫蘇葉: 雜質과 老梗을 제거하고 사용한다.
- (4) 荊芥: 無汗에는 生用하고, 有汗에는 炒用하며, 止血에는 炒炭하여 사용한다.

\* 신재혁, 이병욱, 엄동명. 本草 效能 主治 用語에 對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10; 23(2): 107-114.

\*\* 박주영. 韓藥 炮製 用語 研究.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5) 羌活 : 雜質을 제거하고 洗淨하여 厚片으로 切片해서 사용한다.
- (6) 白芷 : 雜質을 제거하고 물에 담가 물기가 스며들면 두껍게 썰어 乾燥하여 사용한다.
- (7) 防風 : 물에 담가 수분이 흡수되면 切片하여 사용하고, 發表에는 生用하고, 止痒에는 蜜炙하며, 發痘에는 酒洗하고, 止瀉에는 炒用하며, 止血에는 炒炭한다.
- (8) 藁本 : 洗淨해서 潤透後에 切片하여 曬乾用한다.
- (9) 辛夷 : 苞片을 벗겨 속의 蕊心을 微焙한 후 破碎하여 사용한다.
- (10) 細辛 : 濕潤시킨 다음 切斷하고 曬乾하여 사용한다.
- (11) 生薑 : 雜質을 제거하고 入煎時에 절편하여 사용한다.
- (12) 香薷 : 해당내용 없음
- (13) 葱白 : 해당내용 없음
- (14) 檉柳 : 해당내용 없음
- (15) 蒼耳子 : 清炒하여 사용한다.

## 2) 發散風熱藥

- (1) 薄荷 : 해당내용 없음
- (2) 牛蒡子 : 生用하거나 微炒하여 搗碎하여 사용한다.
- (3) 桑葉 : 洗淨하여 使用하거나, 蜜水를 적셔 사용한다.
- (4) 菊花 : 해당내용 없음
- (5) 葛根 : 解表, 透疹, 生津에는 生用하고, 止瀉에는 煨用한다.
- (6) 柴胡 : 外感에는 生用하고, 內傷升氣에는 酒炒用하며, 陰虛人에게 使用할 때는 酸炒 또는 鱉血炒하여 사용한다.
- (7) 升麻 : 清熱解毒에는 多量을 生用하고, 升陽에는 少量을 蜜炙 하거나 酒炒한다.
- (8) 蔓荊子 : 文化로 炒한다.

- (9) 淡豆豉 : 清水에 洗淨하여 曬乾用하거나 또는 焦香하여 사용한다.
- (10) 蟬蛻 : 해당내용 없음
- (11) 浮萍 : 해당내용 없음
- (12) 木賊 : 諸血病에는 炒黑하여 使用하고, 發散에는 洗淨하고 去節하여 사용한다.

## 2. 清熱藥의 炮제법

### 1) 清熱瀉火藥

- (1) 石膏 : 生石膏는 雜質과 泥土를 제거하고 깨끗이 한 다음 打碎하여 사용하며, 煨石膏는 깨끗한 石膏塊를 取하여 無烟 爐火 혹은 적당한 耐火容器 中에 놓고 武火로 가열하여 脆鬆狀이 될 때까지 煨한 다음에 꺼내어 서늘한 곳에 펼쳐 두었다가 碾碎하여 사용한다.
- (2) 知母 : 清熱瀉火와 滋陰潤燥에는 生用하고 腎經에 入하여 滋陰降火에는 鹽水炒한다.
- (3) 蘆根 : 절단하여 사용하거나 절단한 후 曬乾한다.
- (4) 瓜樓根 : 生用한다.
- (5) 竹葉 : 細切하여 사용한다. 鮮者가 더욱 좋다.
- (6) 梔子 : 上中二焦의 清熱瀉火에는 連殼用하여 生用하고, 下焦를 치료할 때는 去殼하여 炒黃하고, 止血에는 炒黑하여 사용한다.
- (7) 夏枯草 : 花穗만을 취하여 細切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高혈압에 대한 藥理작용을 실험한 결과 全草가 花穗보다 우수하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藥用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8) 淡竹葉 : 雜質과 뿌리를 제거하고 細切한 다음 曬乾하여 사용한다.
- (9) 密蒙花 : 生用하거나 蜜製하여 사용한다.

- (10) 青箱子 : 生用하거나 炒爆하여 사용한다.
- (11) 槐角 : 生用하거나 또는 蜜炙하여 사용한다.

2) 清熱燥濕藥

- (1) 黃芩 : 切片하여 건조하여 사용한다. 清熱瀉火에는 生用하고, 安胎에는 炒用하며, 上焦의 熱을 清하는데에는 酒炒用하고, 止血에는 炒炭用한다.
- (2) 黃連 : 清熱瀉火에는 生用하고, 上焦의 火를 清하려면 酒炒用하며, 嘔吐를 止하고자 하면 薑汁拌炒하며, 肝胃不和로 인한 嘔吐吞酸에 吳茱萸湯浸炒하여 사용한다.
- (3) 黃柏 : 實火를 瀉하려면 生用하고, 陰虛火炎에는 酒製하며, 下焦의 火를 치료하려면 薑製하고, 虛火에는 鹽水炒하며, 止帶에는 炒黑하여 사용한다.
- (4) 龍膽草 : 清熱燥濕에는 生用하고, 上焦火와 肝膽實火에는 酒龍膽을 사용하고, 清肝涼血에는 龍膽炭을 사용한다.
- (5) 苦參 : 生用하며 止血治病에는 苦參炭을 사용한다.
- (6) 白鮮皮 : 去心하고 細切하여 사용한다.
- (7) 大豆黃卷 : 生用 또는 竹葉燈心湯에 煮한다. 燈心과 淡竹葉을 술에 넣고 煎탕한 후 찌꺼기를 버린 물에 大豆黃卷을 넣고 文火로 가열하여 湯液이 大豆黃卷에 흡수될 때 꺼내어 曬乾한다(大豆黃卷 500g : 淡竹葉 12g : 燈心 6g).

3) 清熱涼血藥

- (1) 犀角 : 鎊으로 磨하여 사용한다.
- (2) 地黃 : 乾地黃은 止血에 炒炭한다.
- (3) 玄參 : 清熱涼血에는 生用, 活血散瘀에는 酒炒用, 止血에는 炒炭하여 사용한다.
- (4) 牡丹皮 : 清熱涼血에는 生用, 活血散瘀에

- 는 酒炒用, 止血에는 炒炭하여 사용한다.
- (5) 赤芍藥 : 生用한다.
- (6) 紫草 : 生用하거나 酒洗하여 사용한다.

4) 清熱解毒藥

- (1) 金銀花 : 生用하거나 炒炭하여 사용한다.
- (2) 連翹 : 雜質을 제거하고 生用한다.
- (3) 蒲公英 : 細切하여 사용한다.
- (4) 紫花地丁 : 細切하여 사용한다.
- (5) 大青葉 : 細切하여 사용한다.
- (6) 板藍根 : 細切하여 사용한다.
- (7) 靑黛 : 研末하여 사용한다.
- (8) 牛黃 : 研末하여 極細末로 만들어 사용한다.
- (9) 馬齒莧 : 切斷하여 사용한다.
- (10) 白頭翁 : 潤透시킨 다음 薄片으로 절편하고 건조하여 사용한다.
- (11) 敗醬草 : 細切하여 사용한다.
- (12) 秦皮 : 細切하여 사용한다.
- (13) 白花蛇舌草 : 細切하여 사용하거나 新鮮品을 사용하기도 한다.
- (14) 熊膽 : 研細末하여 사용한다.
- (15) 白薇 : 切片하여 사용한다.
- (16) 漏蘆 : 洗淨한 다음 細切하고 乾燥하여 사용한다.
- (17) 山慈姑 : 潤透시킨 다음 切片하고 乾燥하여 사용한다.
- (18) 綠豆 : 搗汁하거나, 粉末로 만들어 사용한다.
- (19) 萎陵菜 : 細切하여 사용한다.
- (20) 野菊花 : 生用한다.
- (21) 忍冬藤 : 細切하여 사용한다.
- (22) 蚤休 : 潤透시켜 薄片으로 만들어 건조하여 사용한다.
- (23) 半邊蓮 : 切斷하여 사용한다.
- (24) 土茯苓 : 浸泡하여 潤透시킨 다음 切片하여 사용한다.
- (25) 魚腥草 : 切斷하여 사용한다.

- (26) 射干: 潤透시킨 다음 切片하고 건조하여 사용한다.
- (27) 山豆根: 殘莖을 제거하고 浸泡하여 潤透시켜 切片하고 乾燥하여 사용한다.

## IV. 考 察

### 1. 用語 추출

#### 5) 清虛熱藥

- (1) 靑蒿: 清熱解暑와 截瘧에는 生用하며, 除蒸에는 鱉血炒(靑蒿 500g에 鱉血 75g) 혹은 醋靑蒿(靑蒿 500g에 10% 醋 50g) 하여 사용한다.
- (2) 白薇: 細切하여 사용하거나, 米泔浸한 후 잔 뿌리를 제거하고 蒸하여 사용한다.
- (3) 地骨皮: 木心을 제거하고 細切하여 사용한다.
- (4) 銀柴胡: 일반적으로 細切하여 生用하나, 清虛熱의 효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鱉血灸(銀柴胡 500g당 活鱉 2개정도)하여 사용한다.
- (5) 胡黃連: 細切하여 사용한다.

위에 열거한 내용을 토대로, ‘修治 以前’, ‘修治’, ‘ 건조와 절단’에 해당하는 용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修治 以前’에 해당하는 용어는 깨끗하게 씻는다거나 雜質을 제거하는 등 약물을 가공하기 이전에 처리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本草學』에서는 ‘洗淨과 加工’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이물질 제거, 비약물 부위의 분리와 제거, 기타 가공으로 나누어 개괄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修治’에 해당하는 용어는 약물의 효능을 강화시키거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물이나 불을 이용하여 약물의 성질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구분하였다. 『本草學』에서는 ‘炮炙’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炒法, 炙法, 燉法, 蒸 煮 燂法, 複製法, 醱酵發芽法, 其他製法으로 나누어 개괄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 건조와 절단’은 修治를 마친 다음 單味나 處方에 사용하기 위해 건조시키거나 절단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本草學』에서는 ‘飲片切製’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飲片의 형태, 飲片切製의 방법, 切製前의 水處理, 飲片의 乾燥方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本草學』에서는 건조와 절단을 修治 이전에 설명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修治 이후 시행하는 행위로 설정하여 도표를 만들었다.

\*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04. pp.113~117. 내용 요약.

\*\*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04. pp.131~149. 내용 요약.

\*\*\*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04. pp.117~125. 내용 요약.

## 2. 解表藥의 炮制法

### 1) 發散風寒藥

약재	修治 以前	修治	건조와 절단
麻黃	雜質 제거, 生用	蜜炙	
桂枝			물에 담갔다가 썰어서 乾燥
紫蘇葉	雜質 老梗 제거		
荊芥	生用	炒, 炒炭	
羌活	雜質 제거, 洗淨		厚片으로 切片
白芷	雜質 제거		물에 담갔다가 두껍게 썰어 乾燥
防風	生用	蜜炙, 酒洗, 炒, 炒炭	물에 담갔다가 切片
藁本	洗淨		潤透後 切片, 曬乾
辛夷	苞片 제거	蕊心 微焙	破碎 사용
細辛			濕潤, 切斷, 曬乾
生薑	雜質 제거		切片
香薷			
葱白			
檉柳			
蒼耳子		清炒	

### 2) 發散風熱藥

약재	修治 以前	修治	건조와 절단
薄荷			
牛蒡子	生用	微炒	搗碎
桑葉	洗淨	蜜水漬	
菊花			
葛根	生用	煨	
柴胡	生用	酒炒, 酸炒 或 鱉血炒	
升麻	生用	蜜炙 或 酒炒	
蔓荊子		文火炒	
淡豆豉	清水洗淨	焦香	曬乾
蟬蛻			
浮萍			
木賊	洗淨, 去節	炒黑	

### 3. 清熱藥의 炮製法

#### 1) 清熱瀉火藥

약재	修治 以前	修治	건조와 절단
石膏	雜質 泥土 제거	煨	打碎
知母	生用	鹽水炒	
蘆根			절단 或 절단 후 曬乾
瓜樓根	生用		
竹葉			細切
梔子	連殼 生用, 흑 去殼	炒黃, 炒黑	
夏枯草			細切
淡竹葉	雜質 뿌리 제거		細切, 曬乾
密蒙花	生用	蜜製	
青箱子	生用	炒爆	
槐角	生用	蜜炙	

#### 2) 清熱燥濕藥

약재	修治 以前	修治	건조와 절단
黃芩	生用	炒, 酒炒, 炒炭	切片 건조
黃連	生用	酒炒, 薑汁拌炒, 吳茱萸湯浸炒	
黃柏	生用	酒製, 薑製, 鹽水炒, 炒黑	
龍膽草	生用	酒製, 炭	
苦參	生用	炭	
白鮮皮	去心		細切
大豆	生用	竹葉燈心湯煮	
黃卷			

#### 3) 清熱涼血藥

약재	修治 以前	修治	건조와 절단
犀角			鎊磨
地黃		炒炭	
玄參	生用	酒炒, 炒炭	
牡丹皮	生用	酒炒, 炒炭	
赤芍藥	生用		
紫草	生用	酒洗	

4) 清熱解毒藥

약재	修治 以前	修治	건조와 절단
金銀花	生用	炒炭	
連翹	雜質 제거		
蒲公英			細切
紫花			
地丁			細切
大青葉			細切
板藍根			細切
青黛			研末
牛黃			研末 極細末
馬齒莧			切斷
白頭翁			潤透 薄片 절편 건조
秦皮			細切
敗醬草			細切
白花蛇舌草	新鮮品		細切
熊膽			研細末
白薇			切片
漏蘆	洗淨		細切, 乾燥
山慈姑			潤透, 切片, 乾燥
綠豆			搗汁, 粉末
萎陵菜			細切
野菊花	生用		
忍冬藤			細切
蚤休			潤透, 薄片, 건조
半邊蓮			切斷
土茯苓			浸泡, 潤透, 切片
魚腥草			切斷
射干			潤透, 切片, 건조
山豆根	殘莖 제거		浸泡, 潤透, 切片, 乾燥

5) 清虛熱藥

약재	修治 以前	修治	건조와 절단
青蒿	生用	鱉血炒, 醋	
白薇	잔뿌리 제거	米泔浸, 蒸	細切
地骨皮	木心 제거		細切
銀柴胡	生用	鱉血灸	細切
胡黃連			細切



#### 4. 用語 사용에 대한 考察

修治 이전에 실시하는 행위에 대한 用語를 살펴보면 解表藥의 경우 雜質을 제거한다, 洗淨한다, 生用한다는 내용이 특히 많이 언급되어 있다. 清熱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雜質을 제거한다, 洗淨한다, 生用한다는 내용이 많으며, 간혹 泥土를 제거한다, 뿌리를 제거한다, 殘莖을 제거한다, 去心한다는 언급이 있다. 그러나 총론 부분에서 분류하기로는 異物質을 除去하는 方法으로 挑選, 篩選, 風選, 洗漂 등이 있으며, 非藥用 部位의 分離와 除去 方法으로 去莖, 去根, 去枝莖, 去皮殼, 去毛, 去蘆, 去心, 去核, 去頭尾足翅 등이 있고, 其他 加工 方法으로 碾搗, 揉差, 製絨, 拌衣 등이 있다고 하였다\*. 즉 총론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공방법에 대한 용어가 각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몇 가지 되지 않고 오히려 雜質을 제거한다, 洗淨한다는 분명하지 않은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修治用語를 살펴보면 解表藥에서는 蜜炙, 炒, 炒炭, 酒洗, 微焙, 清炒, 微炒, 蜜水漬, 煨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清熱藥에서는 煨, 鹽水炒, 炒黃, 炒黑, 蜜製, 炒爆, 蜜炙, 炒, 酒炒, 炒炭, 薑汁拌炒, 吳茱萸湯浸炒, 酒製, 薑製, 鹽水炒, 炭, 竹葉燈心湯煮, 酒洗, 鱉血炒, 米泔浸, 蒸, 鱉血灸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清熱解毒藥의 경우는 修治에 해당하는 경우는 金銀花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修治 이전에 시행하거나 건조나 절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제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조하는 방법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면, 물에 담갔다가 썰어서 乾燥, 물에 담갔다가 두껍게 썰어 乾燥, 曬乾, 切斷, 切片, 절단 후 曬乾, 절편 건조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총론에서는 曬乾이나 涼乾하는 자연건조 방법이나 인공 건조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曬乾한다고 설명한 약재로는 藁本, 細辛, 淡豆豉, 蘆根, 淡竹葉 등이 있다.

절단하는 방법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면 대부분 細切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총론에서는 飲片의 형태 및 규격에 대하여 薄片, 極薄片, 厚片, 直片, 斜片, 寬絲, 細絲, 段(咀節), 塊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용어로 설명한 약재는 白頭翁, 密休 두 가지만 해당한다.

이상 내용을 토대로, ‘修治 以前’, ‘修治’, ‘건조와 절단’에 해당하는 용어를 살펴본 결과 총론과 각론에서 설명하는 포제 관련 용어들이 일관성이 없거나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각론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총론에서 언급한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각론에서만 보이는 용어들은 총론에 포함시켜 개괄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麻黃의 경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本草學』 총론에서 마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麻黃은 莖과 根이 모두 약에 들어가면 兩者의 작용이 서로 달라서 줄기는 發汗解表하고, 뿌리는 止汗하므로 분리하고 구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04. pp.113~117. 내용 요약.

\*\*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04. pp.123~125. 내용 요약.

\*\*\*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04. p.119.

\*\*\*\*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04. p.114.

약물을 研하여 絨狀으로 함으로써 藥性을 완화하고 調劑에 편하게 하는데, 麻黃은 研하여 絨으로 하면 發汗作用이 완화되어 年老한 사람이나 體弱한 사람, 소아에 복용하기 적합하다\*.

약재의 형태가 細長하고 내부에 함유된 성분이 쉽게 煎出되는 것은 切製할 때에 일정한 길이의 段으로 하여야 한다(예: 木賊, 荊芥, 薄荷, 麻黃, 益母草 등)\*\*.

蜂蜜은 甘平하여 補中潤燥, 止痛, 解毒, 矯味矯臭의 작용이 있어 약물을 서로 잘 화합하게 하므로 약물의 치료효과를 증강시킨다. 보통 蜂蜜로 製하는 약은 甘草, 麻黃, 紫菀, 枇杷葉, 款冬花, 百部根, 馬兜鈴 등이다\*\*\*.

麻黃은 發汗작용이 강하지만 蜜炙한 후에는 發汗力이 약해지는 반면 止咳平喘의 작용이 강하여진다. (중략) 蜜炙를 하는 약물로는 甘草, 黃芪, 紫菀, 馬兜鈴, 百部根, 白前, 枇杷葉, 款冬花, 旋覆花, 桑白皮, 百合, 麻黃, 金櫻子 등이 있다\*\*\*\*.

각 부분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하지만, 위 내용을 요약하면 麻黃의 炮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각론 수록 내용	총론에 근거하여 수정
雜質을 제거하고 發汗에는 生用하고, 潤肺止咳에는 蜜炙用한다.	發汗解表에는 去根하고, 止汗에는 去莖한다. 止咳平喘에는 蜜炙한다. 飮片은 길이 10~15mm 정도로 段으로 세절하여 사용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비단 마황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약물의 炮제 내용은 총론에서 언급하는 내용이나 각론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모두 일맥상통하게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 V. 結論

『本草學』에 수록된 解表藥과 清熱藥의 炮製用語를 調査한 結果 修治 이전에 가공하는 행위에 대한 용어와, 修治에 해당하는 용어, 乾燥와 切斷하는 행위에 대한 용어가 섞여서 炮製用語로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과정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용어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하며, 의미 또한 분명하게 구분되어 사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臨床에서도 곧장 활용되고 있는 지식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本草學 관련 용어들은 더욱 정확하고 서술되어야 하며, 용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炮製用語考察에 치중하였지만 앞으로는 炮製方法과 效能의 상관관계까지 고려하여 용어 표준화 작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용어 표준화 작업은 대한한의학회의 한의학용어 표준화 작업지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感謝의 글

본 논문은 2010년 원광대학교 신임교수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04. p.117.

\*\*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04. p.120.

\*\*\*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04. p.128.

\*\*\*\*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04. pp.139~140.

## 參考文獻

1.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04. pp.113-149.
2. 대한한의학회 한의학용어 및 정보 표준화 위원회. 한의학 용어 표준화 작업지침서. 2007.
3. 박주영. 韓藥 炮製 用語 研究.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4. 신재혁, 이병옥, 엄동명. 本草 效能 主治 用語에 對한 研究.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010; 23(2):107-114.